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 ‘제2의 대항해 시대, 21세기 우주탐사’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



담양경찰,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담양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담양군 농업인 한마당 대회’에서 농기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추수철을 맞아 농기계 운행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경찰 교통관리계는 행사 현장에서 형광 조끼와 야광반사지를 배부하며 야간 운행 시 시인성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농번기 마을회관과 영농현장 등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목포농협 ‘2025년 새농민대회’ 성료

목포농협은 지난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목포농협 새농민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합 임원과 대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 목포농협 조직장을 비롯해 조직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대회는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시상식, 축하 공연, 내·외빈 축사,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농협은 농업과 농협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과 고객을 선정해 포상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지역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수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시민들의 건강한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여수경찰 ‘피싱 피해 제로’ 홍보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여수시민 피싱 피해 제로’ 예방·홍보 캠페인’을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경찰은 주민센터와 협력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여객센터 미널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또 주요 전통시장이 열리는 장날에 맞춰 소상공인과 방문객에게 관공서 사칭 피싱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결혼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레스 웨딩을 신관 지젤을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교 교사)군, 오형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레스 웨딩을 분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우주탐사 시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15세기 대항해 시대 닮아 수혜 확실히
민간영역 활짝...궤도 금융·화성행 속도
미래 가능성 무한...시대 변화 관심갈 것

“21세기 우주탐사는 제2의 대항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미래를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좌가 지난 1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성수(56)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 교수는 ‘제2의 대항해 시대, 21세기 우주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우주선을 타고 광활한 우주를 탐험해야 하는 21세기는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를 가야 했던 15세기 대항해 시대와 닮았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 “최근에는 전 세계가 달, 화성 등 우주탐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 중 하나로 달을 탐사해 미국이 승리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2년 미국의 아폴로 17호가 1천 km 상공을 뚫고 달에 착륙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유인 우주선은 잠잠해졌지만, 중국이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준비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보여 우주탐사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의 시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최근 우주탐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대목에서 김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한 제12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4강좌가 지난 11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총장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성수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 교수는 ‘제2의 대항해 시대, 21세기 우주탐사’를 주제로 강연했다.

교수는 관련 시장의 전망 역시 좋을 것으로 봤다.
그는 “2000년대 말 NASA가 민간 주도 우주탐사를 위해 여러 업체에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스페이스X만 유일하게 끝까지 완수했다”며 “스페이스X의 성공으로 여러 국가에서 민간 우주탐사 업체를 키우려 한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달, 화성, 소행성 탐사 및 지 지 건설 활동 등 국가사업은 물론, 우주여행도 가능하며 우주에서 얻은 자원을 지구에서 쓰는 일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교수는 미래에는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는 ‘공중금융’처럼 우주 공간에서도 ‘궤도금융’이 가능해져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주선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궤도의 발전으로 화성 탐사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가까운 미래에 지구에서도 대륙 간 로켓 활용으로 물자 이송 시간을 기존의 40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달이나 소행성에서 채굴해 온 물질을 분해해

너지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주탐사 시대는 대항해 시대와 유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시 수혜를 누렸던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언급한 후 “신세계를 탐험하고 교역을 펼치며 부를 누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시대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면 안된다. 당면한 미래를 받아들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형우기자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도, 충북 진천 선수촌서 ‘전남산 수산물’ 홍보

전남도는 1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제2회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남 청정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남 수산물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도, 수협중앙회, 대한체육회,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전남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행사에선 전복, 굴비, 장어, 민어, 굴, 문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수산물을 활용한 특식 500인분이 제공됐다.
행사장에서는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 김택수 선수촌장이 직접 수산물 특식 배식에 나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전남 지역 대표 수산물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홍보 부스가 마련돼 선수단과 관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수산물은 국가대표 선수단 식단에 오를 정도로 맛과 영양이 좋다”며 “정정 전남 수산물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판로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전남 유기농 명인’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 선정

전남도는 12일 “2025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에 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기농 명인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 농업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흥 송효수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라유, 고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으며 벚짚을 환원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한 후는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씨는 유황살 재배방법을 사용해 6도(°C) 온탕소독과 유황 침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할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송효수 김재기 이병연
해남 이병연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선스를 취득, 자가종자를 사용·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주기적으로 물을 채우고 빼주는 교대 간수법을 도입해 뿌리 활착과 토양 호흡을 촉진하고 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도는 명인들이 개발한 우수 유기농법이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가래떡데이·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12일 “전날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곡성교육지원청, 곡성농협과 함께 곡성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가래떡데이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곡성 쌀로 만든 가래떡과 음료를 나눠주며 가래떡데이의 의미와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렸다.
심지숙 곡성교육장은 “아이들이 가래떡을 통해 우리 쌀의 가치를 느끼고, 건강을 위해 아침밥을 꼭꼭 먹자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부의 정성이 담긴 우리 쌀과 곡산 농산물 소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영광미래교육재단, 학부모연합회 소통간담회

영광미래교육재단은 12일 “지난 10월 재단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영광학부모모임연합회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재단 설립 이후 학부모들과 공식적으로 마주한 첫 자리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습 환경 개선 ▲진로 지원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등 지역 교육 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단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세일 이사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부모·학교·지역이 협력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광양제철 발마사지 봉사단, 취약계층 백미 등 기부

광양제철소 발마사지 재능봉사단은 “최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갖고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덕규 발마사지 재능봉사단장, 김민석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처장, 성혜란 노경희노인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봉사단은 10kg 백미 20포와 지저귀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봉사단원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했으며, 노경희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



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양=양홍렬 기자